『금강반야바라밀경 제29장 위의적정분(威儀寂靜分)과 대반열반경 6권 사의품(四依品)』

여래는 우주의 근본체인 법신이므로 오고 감이 없는 <이제그대로>이시다

위의적정분(威儀寂靜分) 第二十九

엄숙한 용모와 장중한 태도가 고요함

須菩提 若有人言如來若來若去
수보리 약유인언여래약래약거
若坐若臥 是人不解我所說義
약좌약와 시인불해아소설의
何以故 하이고
如來者 無所從來 亦無所去
여래자무소종래 역무소거
故名如來 고명여래

수보리야, 만일 여래(法身佛)가 오거나, 가거나, 앉거나, 누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내가(석존) 말씀한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래(법신불)는 오는 곳도 없고, 가는 곳도 없는 것이 여래니라.

[해석] 여래(法身佛)는 우주의 근본체인 법신(法身)이므로 가고 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반경에도 석존이 말씀하길 여래(法身佛)는 영원(常)하게 머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시] 대반열반경 6권 사의품(四依品) 제8
法者卽是法性 義者卽是如來常住不變
법자즉시법성 의자즉시여래상주불변
智者知一切衆生悉有佛性
지자지일체중생실유불성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것이 법의 성품이요, 뜻이라고 하는 것은 여래께서는 항상 머무르시고 변함이 없다는 것이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성품이 있음을 아는 것이니라.

[해석] 여래라고 함은 바로 부처성품(佛性)이요 부처성품은 곧 법의 성품(法性)이고 법의 성품은 진리의 본체요, 또 부처성품(佛性)은 생명의 실상인데 이 우주의 모든 것이 물질이라면 이 물질들 가운데 생명의 실상이 있고 진리의 내면이 있는 것입니다.

일체중생이란 바로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을 말하는 것이고 이 물질 속에 우리 인간을 포함하여 동물과 식물, 돌과 나무, 물과 바람과 흙 등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것, 또한 생각이 있는 것과 생각이 없는 일체의 모든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현대 과학에서는 물질들이라고 합니다. 물질은 바로 원자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원자를 또 쪼개고 들여다보면 바로 원자핵과 중성자 그리고 그 둘레를 도는 전자가 있다는 것이 요즘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이러한 것이 존재를 하려면 이런 것이 움직이는 형태를 취해야 하는데, 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살아 있다는 것이며, 살아 있다고 한다면 생명이 있다는 것이므로, 생명이 있으므로 존재하기 때문에 물질 자체가 생명이요 생명은 바로 법계인 우주의 주인인 법신부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으로 일체중생 모두에게 부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석존께서는 완성된 불도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제자들이나 또는 지금의 제자들인 스님들이 석존의 죽음을 보고 "왔다느니, 돌아갔다느니"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우주의 본체인 여래가 왔다 갔다 누웠다 앉았다 하는 말씀은 뜻을 알지 못하고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주인이신 미륵부처님은 돌부처나 쇠부처 형상이 아닌 육신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현신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에 사람의 몸을 입고 역사하시나 사실은 감로를 가지고 사람들 각각의 업장을 감로의 빛으로 소멸시켜 지혜를 갖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며 희망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 위대한 능력의 주인공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우주에 꽉 찬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망의 마귀(死魔)'를 이제 그대로 감로의 빛으로 소멸시키며 온 우주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미륵부처님께선 분신(分身)의 능력이 있으시므로 동시에 각각의 장소에 각각 다른 분과 함께 동행하는 이적(異跡)도 수없이 많습니다.*

수니의 요가교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나라는 의식이 마귀인고로~"

마귀가 죽는 정도만큼 이 사람의 말을 이해한다. 80% 마귀의 피로 이루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한다. 생각이라는 것이 피의 작용이요, 피의 작용이 생각인데 놀랍게도 사람은 20%의 하나님의 피에 의해서 생존하고 있는 고로 마귀가 죽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금세 죽여 버린다. 이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폭이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 말의 내용은 똑같으나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이해하기 때문에 말속에 말을 100% 이해하는 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이 변해야 이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가 있다. 나라는 의식의 마귀가 죽는 정도만큼 이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것이다. 심령이 자라야 깨닫는 폭이 점점 넓어진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 잘못된 자세를 고쳐 근육 긴장을 줄이고, 만성 통증을 날려버리자~!**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자. 꾸준한 인내와 노력으로 낮은 강도의 지구력을 높이는 요가로서 관절염, 통증 등의 극복을 위해 근력을 키우자. 그것이 기회를 잡는 살아 있는 자의 특권이다.

준비운동: 금강좌로 편안하게 앉아서 손목, 발목, 어깨의 힘을 뺀 상태로 부드럽게 풀어준다.

효능: 평행감각, 집중력, 힙업, 각선미를 아름답게.

동작①: 테이블 자세로 손은 어깨너비, 무릎은 골반 너비로 복식호흡을 10초 유지.

동작②: 테이블 자세로 호흡을 코로 마시며 오른쪽 다리를 일직선이 되도록 멀리 뻗어 발끝을 올려준다. 내쉬는 호흡으로 복부 괄약근 엉덩이를 수축한다. 10초 유지. 좌우 3세트.

효능: 심폐기능과 호흡기, 기관지, 갑상선 호르몬을 원활히 하여 주고, 백회혈 자극으로 두통에 효과적, 오십견 예방, 굳은 어깨와 등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

동작③: 금강좌로 등 뒤에 깍지를 끼고 꼬리뼈를 따라 팔을 늘려준다. 10초 유지. 5회.

동작④: 내쉬는 숨에 그대로 상체를 앞으로 구부려 이마를 바닥에 대고 깍지 낀 팔을 어깨 위로 끌어올려 펴준다. 편하게 호흡하며 10초 유지. 5회.*

동작①

동작②

동작③

동작④

격암유록 新해설
수정판 제51회

隱秘歌(八) 은비가

死運重山不利狗鼠鬪食一夜間由倒觀
사운중산불리구서투식일야간유도관
死運六角八人牛兎相爭十日間立十觀
사운육각팔인우토상쟁십일간립십관
宋字十八加公木公間生不如松人擇
송자십팔가공목공간생불여송인택
深谷地名 심곡지명
可字豕着冠 가자시착관
火口間生不如臥眠臥身 巡簷簷名
화구간생불여와면와신 순첨첨명
全字十口入 兩弓間生不如修道正己
전자십구입 양궁간생불여수도정기
田名 三數之理弓乙田一理貫通
전명 삼수지리궁을전일리관통
三妙之十勝 삼묘지십승

감로해인은

병자호란 때의 죽을 운은 집 밖으로 나가는(중산重山=出) 것이니라. 개와 쥐가 밥을 두고 싸우니 하룻밤 사이에 끝이 나느니라. 일야간유도관(一夜間由倒觀) 유도(由倒)는 유(由)를 뒤집는다는 뜻이니 갑(甲)이요 개는 술(戌)이니 갑술(甲戌)이요 쥐는 서(鼠=지지의 子)이니 갑술, 을해(乙亥)를 지나 병자호란을 말한다. 하룻밤 사이만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천재(天災)인 폭설의 피해를 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마지막 말세의 죽을 운은 육각팔인(六角八人)에 있느니라. 육각(六角)은 천(天)이요 팔인(八人) 화(火)이니 곧 천화(天火)를 말하며(살아자殺我者=소두무족小頭無足)

소(우牛=丑축)와 토끼(토兎=卯묘)가 서로 싸우게 되나 10일이 지나야 끝이 나느니라.(축~술) 립(立)과 십(十)자를 합해서 보라. 즉 천간(天干) 신(辛)자의 파자. 신축(辛丑) 임인(壬寅)을 지나서 계묘(癸卯)에 '하늘에서 천화(天火)가 내려온다.'는 뜻이다.(소두무족비화락지小頭無足飛火落地)

임진왜란 때 살려면; 송(宋)은 송(松=十八加公십팔가공)인데 소나무 사이(소나무 숲)에서 살아나기를 꾀하는 것은 소나무 송(松)자의 이름을 가진 사람(松人)을 택함만 못하느니라. 즉 임진왜란 때 조선을 지원하러온 명나라 이여송(李如松) 장군을 의미한다. 송(松) 즉 소나무는 깊은 산골짜기의 땅에서 자라는 나무를 이르느니라.

병자호란 때 살려면; 가(可)는 가(家=豕着冠시착관)이며 병화(兵火)가 있을 때 피란 가는 사람들에 끼어 살려고 하는 것은 집안에 누워서 잠자는 것만 못하느니라. 가(家)는 사방을 둘러 처마(簷첨)가 달려있는 것을 이르느니라.

마지막 말세에 살려면; 온전할 전(全)자는 곧 밭 전(田)을 말함이니 입 구(口) 속에 열 십(十)자가 들어있는 글자이니라. 양궁(兩弓)사이(間간) 즉 십(十)자인데 아무 십자 사이에서나 살려고 하는 것은 수도(修道)해서 자기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만 못하느니라. 흑십자(黑十字)가 아닌 전(田)자의 이치로 오신 백십자(白十字)의 주인공인 십승지인(十勝之人)이 있는 곳에 들어가야 살 수 있으나 수도(修道)를 해서 자기 몸가짐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뜻이다. 전(田)이란 삼수(三數)의 이치로 오는 궁을(弓乙)의 전(田)을 이르는 것이니 하나의 이치로 관통하느니라. 삼수(三數)의 오묘한 이치 속에서 완성의 십승(十勝) 정도령(구세주)이 나오게 되느니라.

全全田田陰陽兩田之間
전전전전음양량전지간
弓弓雙弓左右背弓之間
궁궁쌍궁좌우배궁지간
乙乙四乙轉背四方之間
을을사을전배사방지간
單弓武弓 天上靈物 단궁무궁 천상영물
甘露如雨 心火發白 감로여우 심화발백
永生之物 卽三豊之穀也
영생지물 즉삼풍지곡야
白石卽武弓 백석즉무궁
夜鬼發動 鬼不知 야귀발동 귀부지
項鎖足鎖下獄之物 항쇄족쇄하옥지물
一名曰海印 일명왈해인
善者生獲之物 선자생획지물
惡者死獄之物 악자사옥지물
卽三物也 즉삼물야
三物卽一物生死特權之物也
삼물즉일물생사특권지물야

전전(全全)은 전전(田田)인데 음전(陰田)과 양전(陽田)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된 전(田)이 나오며 그 완전, 완성의 전(田)에서 십승(十勝)이 나오느니라. 궁궁(弓弓)은 쌍궁(雙弓)이요 궁(弓)자를 좌우로 등을 돌리게 하면(左右背弓之間 좌우배궁지간) 백십승(白十勝)이 나오느니라. 을을(乙乙)을 가로 세로로 합해서 쓰면 십승이 나오고 사을(四乙)을 돌려가며 등을 지게 한 것에서도 십승이 나오느니라. 단궁(單弓)은 무궁(武弓)이다. 마귀를 죽여 이기는 궁(弓)이니 천상(天上)의 영물(靈物)인 감로가 비와 같이 내리느니라. 이는 마음을 밝게 하고 희고 깨끗하게 하여 영생을 주는 신령스러운 영물(靈物)로서 즉 삼풍(三豊=火雨露화우로) 곡식이라 하느니라. 백석(白石=흰돌=素砂소사)의 주인공이 곧 무궁(武弓)이요 야귀(夜鬼)가 발동해도 저들이(귀신)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목에는 칼을 씌우고 발에는 족쇄를 채워서 지옥에 던져 버리는 물건으로써 일명(一名) 해인(海印)이라 하느니라. 선(善)한 자에게는 영생(永生)을 얻게 하는 영물(靈物)이요 악(惡)한 자에게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영물(靈物)이니라. 삼물(三物)이 곧 화우로(火雨露) 삼풍 해인인데, 삼물(三物)이 일물(一物)로 된 감로해인은 생(生)과 사(死)를 가르는 특권을 지닌 영물(靈物)이니라.*

박명하 /고서연구가 (010-3912-5963)
myunghpark23@naver.com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참진리

매일 예배 전도 문답 [24]

질문: 승리제단에서는 무슨 이유로 매일 예배를 봅니까?

답변: '나'라는 마귀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승리제단이며, 이곳에서 매일 예배(다니엘 12:11)를 봄으로써 마귀를 죽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마귀를 죽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어떤 은혜를 말합니까?

답변: 처음에는 불같이 뜨거운 불로 임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죄가 타는 냄새가 납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마귀인 고로 마귀를 멸해서 죽이는 고로 이제 불로 태워서 죽이는 고로 마귀 타는 냄새가 나는데, 마치 종이 타는 냄새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종이 타는 냄새가 나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이러한 확실한 증거가 옵니다. 그 다음에는 입 안에서부터 뱃속까지 시원하게 생수가 연결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슬성신이 임해서 온몸이 차가워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질문: 불로 임하는 은혜, 생수 은혜 그리고 이슬성신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을 믿는 곳이면 어느 교회든지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해야 할 것인데, 어찌 승리제단에서만 이런 세 가지 은혜가 임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답변: 인류 조상 아담과 해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 6천 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를 이기는 구세주 하나님이 없었기에,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도 마귀한테 지는 보통 하나님이요 이슬람교도가 믿는 알라신도 마귀한테 지는 보통 하나님이요 기독교인나 천주교인이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마귀한테 지는 보통 하나님입니다. 이런 보통 하나님은 계시록에 예언된 말씀대로 감췄던 만나가 되는 생명과일 즉 영생을 주는 이슬성신의 은혜(호세아 14:6, 이사야 26:19)를 부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승리제단에서는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긴 승리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승리자 하나님으로부터 마귀를 죽여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것입니다.

질문: 오순절 날에 마가 다락방에서 불성령의 은혜가 임했다(행 2:1-4)고 합니다. 혹여 생수 성령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답변: 묵시록 22장 1절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했는데, 현재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구세주께서 계신 소사(素砂)에서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고로 이제 그 거리를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생수 연결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윤봉수** 편집인 **박태선**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몸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673-4635
평택제단 : (010)7516-1591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55)327-2072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순천제단 : (010)3661-9025
정읍제단 : (010)8628-2758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충주제단 : (010)9980-5805
양평제단 :(010)2945-8254
橫浜祭壇 : (045)489-9343
神戶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